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1-21)

시편에는 알파벳 순서를 따라 쓴 시가 8개 있는데 그 중 다윗의 시가 5개 포함되어 있으며 본시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

### 1.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거룩, 의 자비, 권능을 알게 될 때 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참 예배의 중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 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 2. 여호와와 위대하심을 찬양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사에서 나타난 그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놀랍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의 공의'를 찬양합니다(7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생을 구원하시므로 자기의 선하심과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 3. 여호와와 은혜로우심을 찬양

다윗은 8-1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자와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11-13절에는 하나님나라가 강조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말한 시인은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주의 통치'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 4. 여호와와 신실하심을 찬양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 지은 모든 것에 신실하십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께 선민에게 언약은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오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5. 여호와와 의로우심을 찬양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그를 찾고 구하는 이에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형식적이 아닌 진실하게 간구하는 이들, 겸손하게 간절히 구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까지 시인은 끝없는 찬양의 대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I will praise the Lord's name (Psalm 145:1-21)

In book of Psalms, there are eight psalms that are written as alphabetical acrostics, five of which are psalms of David. Psalm 145 is one of them.

### 1. The Great King who is my God

David, the king of Israel, calls the Lord his God. God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eventual Great King over all creation. Therefore, the only thing we can give Him is praise and worship.

When we realize His dominion, holiness, righteousness, and omnipotence, we can worship Him faithfully. We should not attend worship to get what we want from Him, but to know Him as our God and exalt Him on high.

To praise His name is the core of true worship. Our praise will not end on earth, but will continue forever in heaven.

### 2. Praising the Lord's greatness

David believed that God's almighty work ought to be greatly commended and praised Him for it. His work over all creation should leave us amazed, but His goodness in Jesus Christ is even greater than that.

David celebrated 'God's abundant goodness' and sang joyfully of 'His righteousness' (v. 7). This was particularly shown through Jesus Christ's death on the cross. God showed His goodness and righteousness through Jesus Christ's death in order to save us.

### 3. Praising the Lord's grace

In vv. 8-13, David praises the Lord for His grace. Before these verses, he had praised His greatness, and here he praises the Lord's grace, compassionate, love, and goodness. In vv. 11-13, He emphasizes the Lord's kingdom. The psalmist who had called God his King now proclaims the Lord's goodness with these words, 'the Lord's Kingdom,' 'an everlasting kingdom,' and 'the Lord's dominion.'

### 4. Praising the Lord's truth

God is true to His promises. He is true, not only to human beings, but also to His creation. God's promise for the good of those who are saved by Him is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He has promised that He will give Himself whenever we come to Him through Jesus Christ.

### 5. Praising the Lord's righteousness

God is not only righteous morally, but also righteous to those who look for Him and call on Him. God is near to all who call upon Him, not in falsehood or formality, but in truth, modesty, and earnestness. He hears their prayers. Moreover, the psalmist praises God in an endless chorus. The spirit of God which works through the Bible leads us to spiritual life.

By the many blessings that we have received from God,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praise God for ever and ev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2010 홍해작전 은혜 중에 진행

## 6월13일(주)-19일(토) 새벽 5시 / 강사 - 조진모 목사



조진모 목사

조국의 안전, 민족교회와 서울 교회의 비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앞에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2010년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간 송용원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주는 조진모 목사의 설교로 이어지며 북한의 도발과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시국이 불안정한 이때가 기도할 때이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제라도 참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1국(유치, 유년, 초등부)은 홍해작전 백일장 및

그리기대회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티공원에서 실시한다. 각 부서별로 우수작품 5점씩 선정하여 시상한다.

### 2010년 홍해작전 본문과 제목

- 6월 13일(주): 교회와 성령(사도행전 1:6-11)
- 6월 14일(월): 항상 열려있는 문(마가복음 15:11-24)
- 6월 15일(화): 은밀한 곳으로(시편 91:1-16)
- 6월 16일(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골로새서 1:24-29)
- 6월 17일(목): 반드시 살리라(에스겔 33:10-16)
- 6월 18일(금): 마음을 드리는 기도(누가복음 18:9-14)
- 6월 19일(토): 신앙은 계주입니다(빌립보서 1:12-21)

# 2010 장로교의 날 행사

## 주제-성숙한 장로교회 7월 10일(토) 14시 - 장충체육관에서



2010년 7월 10일(토) 14시부터 17시까지 장충체육관 특설무대에서 2010 장로교의 날 행사가 열린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이번행사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장로교의 날 준비위원회가 주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 28개 교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종윤목사를 대회장으로 양병희목사가 준비위원장, 김선규목사의 예배인도 및 류영모목사 성찬집례로 진행된다. 교회의 일치를 외쳤던 요한

칼빈 탄생501주년 기념과 더불어 장로교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견인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 행사는 "성숙한 장로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부-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 2부-성숙한 장로교회 선언, 3부-장로교 전통에 따른 연합과 일치 예배, 4부-한국장로교총연합회 비전 제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장총 대표회장인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2부-개회사 및 개회 선언, 3부 장로교 전통에 따른 연합과 일치 예배에서 설교를 그리고 4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비전 제시의 시간 중 한장총 화합의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이번 장로교의 날 행사를 통해 분열된 장로교회들이 다시금 하나 되는 자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기념 2010 한국대회 기자회견 열려

오는 6월 22일에 서울, 인천, 부산에서 열리는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1일(금) 우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4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박영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윤 대표대회장, 이광순 대표회장, 장훈태 목사 안희열 목사가 대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였다.

6월 22일 서울교회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23-24일 양일 동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주제로 세계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할 국제선교학술대회는 10개 분과로 나뉘어서 100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출판하여 향후 세계 선교를 위한 길잡이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선교신학회, 한국복음주의 선교학회,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국로잔위원회, 김치, 세계선교연구원, 한국기독교학술원, 부산세계선교협회의회가 연합한 한국연합선교회(Korean Association of Mission, KAM)가 주최하여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여러 길로 흘러가는 한국의 교파와 신학이 하나로 연합하자는 큰 목적이 있다.

대표대회장이신 이종윤 목사님은 이번 대회의 목적과 목표를 3I(Inheritance 계승, Identity 오늘, Insight 대안), 3P(Presentation 발표, Production, Participation 참여)로 설명하시며 기독교 언론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므로 이번 선교대회가 더욱더 큰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고 하였다.

허숙권사(편집부)

# 이종윤 목사 시편 강해 마치고

## -5년 3개월의 대장정-

### 다음주부터 박노철 목사룻기 강해시작

2005년 4월 3일 수요일예배부터 시작된 이종윤 목사의 시편 강해설교가 5년 3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금주 수요일(6월16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복있는 사람"(시 1:1-6)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시편 강해설교는 금주 수요일예배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다"로 끝마친다. 찬양과 기도와 고백이 있는 성경 시편 강해는 그간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왔다. 시편 강해는 「시편 1, 2, 3권」 세 권으로 출판되었으며, 테이프와 CD로도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다.

한편 이종윤 목사의 시편 강해 마침을 기념하여 피택권사들이 다음 주일 떡잔치를 준비하며 오후 1시에 축하케이크 커팅을 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축하를 바란다. 다음 주 수요일예배부터는 박노철 목사의 룻기 강해가 시작된다.

# 에딘버러 봉사자 교육

이번 수요일 1부 예배후 에딘버러 대회 만찬을 위한 봉사자 교육이 있다.

오후 1시 602호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 해당되는 봉사자들은 전원 참석 바란다.

# 한국기독교 원로 목사회 정기모임

우리교회는 한국교회 원로목사님 약 400분들이 2010년 2차 정기모임을 6월 17일(목) 본당에서 갖고, 위로회를 801호 만나홀에서 열기로 하였다.



에딘버러 대회 기자회견

### 금주의 성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14:14)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EXODUS 14:14)

순교자 주일 - 손양원 목사 순교 60주년

# 손양원 목사님, 당신이 그림습니다!

## 정수길 목사(7, 8교구 지도)

“스물을 못다 채운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뜬 작은 오빠. 고작 25세에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큰 오빠. 온갖 역경과 갖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곳곳하게 일어나 고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르다가 이 땅에서 48년 생애를 마감한 아버지. 그들은 하나같이 억울하게 총에 맞아 죽었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최후를 받아들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 또한 그 말씀을 외우고 다녔지만, 원수를 갚아야만 조금이나마 한이 풀릴 것 같았고, 치가 떨리고 가슴이 벌렁 거러서 평범한 사람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

(손동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중에서).

1908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손양원 목사님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학을 하면서 중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부친이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투옥되



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소압 중학교를 다니던 중에 동양선교회 노방전도대에 큰 감화를 받고 귀국하여 경남성경학교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그는 평생의 스승인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된다. 193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이듬해에 전남 여수 근처의 나병환자 병원인 애양원교회에 부임하였다. 경상도 사람으로 전라도에서 목회함으로써 스승 주기철 목사님처럼 지역 장벽의 담을 허무는 일에 솔선하였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집회시마다 일제의 악정과 우상숭배 강요를 신랄하게 공격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온갖 핍박과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1945년 해방이 되고 6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자유의 몸이 된 목사님은 애양원교회로 돌아와 다시 나병환자들을 돌보며 섬겼다. 그러던 중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발생하여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학교의 공산당 급우들에게 총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반란이 진압되

고 반란의 주도자들이 처형될 때 동인 형제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강재선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고 마침내 그를 석방시켜 양자로 삼았다. 6.25 전쟁이 터지고 여수 애양원까지 공산군들이 들이닥치자 나병환자들은 목사님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권하였지만 그는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공산당에 체포되어 48세의 젊은 나이에 총살을 당하였다.

오늘날에도 우리네 삶의 자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등과 반목과 분열과 미움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불의를 단호히 물리치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연약한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자기 목숨마저 아깝다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더욱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큰 그리움으로 다가오시나 보다. 목사님의 고백이 부족한 종의 가슴을 파고든다. “나는 예수의 증독자가 되어야겠다.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올 여름에는 위대한 순교자요 사랑의 성자인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러 애양원엘 좀 다녀와야겠다.

## 홍해작전

# 새벽을 깨우며

### 장선영 성도(새가족부)



지난 8년간 주님의 보살핌으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올 2월말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 교육문제로 개포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도 믿음생활을 하고 있어서 교회를 찾던 중 서울교회를 알게 되어 4월초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위임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터라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대예배에 가족과 함께 참석을 하고 또 새가족부 교육에 참여하면서... 조금은 낯설었지만 열정적으로 교육하시는 지혜영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과 매주 만나 교육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교육이 8주라서 도중에 그만 나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라 생각하며 수료하게됩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교회에서는 20일 동안 특별새벽기도회(홍해작전)가 있더군요. 벌써 19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서울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으로서 처음 참여하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믿음생활은 했지만 많이 나태한 가운데 있었는데 홍해작전을 통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서울교회 새가족으로서...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모든 새가족부 성도님들 큰 은혜 나누시길 기도합니다.

### 김해영 피떡권사(1교구)



먼저 이 거룩하고 경건한 은혜의 대열에 담대히 서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어깨를 두르며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흥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는 기적과 구원의 완성과 부활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에겐 가장 크고도 놀라운 비밀의 축제 기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곁에는 흥해가 가로 막히지 않는 삶이야말로 복되다 하고 또는 흥해 앞에 주저앉아 낙심과 두려움으로 떨며 울거나 때로는 뒤돌아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짧고도 유한한 인생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비단나 모든 것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거나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한 척의 배에 의지한 채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 휘말렸거나 시퍼런 흥해 앞에 진퇴양난인 채로 철저히 외로이 흘

로인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들만의 잔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깊은 영혼의 자리에 간직하고 있을 때만이 아담의 자리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철저한 허무함이 본질적으로 치유되며 요셉의 풍량이 영적으로 순풍이 되는 역사를 초대장에 써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 홍해를 이렇게 건너다

최성의 집사(6교구 간사)



“이번 홍해작전때 어떻게 홍해를 건너실 건가요?”

6교구 식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목동에서 20년간 살면서 홍해작전때마다 열심히 참석해오신 어느 집사님은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참석 할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직장생활하라 살림하라 많이 힘드실 텐데...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다락방 예배때마다 “나 홍해작전에서 승리하고 싶으니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평소에도 허리가 아파서 고생이 많으시고 잠자리가 바뀌면 한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십니다.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는 1동, 3동짜리 두 아기의 엄마인 성도님은 지금 지방에 있어서 수요일부터는 꼭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권사님은 건강하실 때 열심히 충성 봉사 했는데 지금은 팔다리 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목사님 심방을 받으실 때마다 감사와 반가움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홍해작전에 참여하고 싶으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집니다.

우리 6교구 식구들은 인천 김포 부천 강서 양천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평균 왕복 3-4시간 소요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번에도 반드시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납게 추격하는 애굽 기마병의 말발굽 소리와 철후 같은 어둠속에서 검푸르게 넘실거리는 홍해의 파도 앞에 서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의 찬양으로 드린다.

송재월성도가 지도와 지휘를 맡고 있으며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은 'Joyful, Joyful (David Jordan)', 'You raise me up (Brendan Graham)' 외 두곡을 김양언성도(할렐루야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드린다.

다. 우리는 홍해를 건널 것입니다.“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방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털고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복한의 악한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 병상에서 지금도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주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 6교구 식구들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5일(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임시)이 사회에 참여한다. 한국로잔위 임원회를 소집한다. 17일(목) 한국 기독교원로 목사회 2차 정기모임 설교를 한다. 18일(금) 장로교의 날 준비위원회를 소집한다.

■ 특담: 심군섭 집사 정수은 성도(7교구)  
 ■ 주간식당 봉사: 엘리야선교회(6.13) 모세선교회(6.20)  
 ■ 금주의 식사 : 한대성 성도 구진영 성도 가정 (결혼을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장덕집사 (12교구 간사)

철커덕 철커덕 와다다다... 애굽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순간 새벽을 가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12교구!



어둡고 험한 이 시대에 당면한 나 자신의 홍해, 가정의 홍해, 나라와 민족 사회의 홍해 앞에 우리 인간의 무지와 나약함을 깨달아 이번 6월6일부터 시작하여 6월25일까지의 홍해 작전을 계기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홍해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 딛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원거리에서 서울교회를 섬기는 우리 12교구 성도님들은 교회의 행사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봉사하는 교구로서 홍해작전 기간동안 원근거리의 성도님들이 유기적인 연락망을 통하여 권

면과 모닝콜, 카풀 작전으로 홍해를 건너고자 우리 12교구는 새벽을 가르며 서울교회로 달려옵니다.

우리 12교구 성도님들은 이 홍해를 건너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말하며,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환상을 보는 기적을 체험코자 우리들의 읊조리는 소리없는 합성은 결단코 변화되는 12교구의 몸부림입니다.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12교구가 되겠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위해.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말씀과 기도로 홍해를 가르는 홍해작전 위하여
4. 복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